

성남 백배 즐기기 울동공원내 책 테마파크 Book Theme Park

자연과 함께하는 책의 정원

"대지 위에 쓰고 그린 한권의 책"

책과 함께 신나게 노는, 오감만족 책 세상 만나



신분증만 말기면 누구나 당일 대여 가능

자연원형 그대로의 산과 호수를 최대한 보존해 자연이 살아있는 곳. 손님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안내하고 싶은 울동공원. 그곳에 가면 국내 최초로 책을 테마로 만든 공원 '책 테마파크'가 있다.

번지점프장 맞은 편, 조각공원을 내려다보며 자리한 독특한 건물 책테마파크는 국내 최고의 건축가인 임옥상, 승효상, 김인수 씨가 조형물을 디자인하고, 건축물을 설계하고, 공원의 자연생태를 조경하는 등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가 셋이서 만들어낸 '대지 위에 쓰고 그린 한권의 책'이다.

건물 자체만으로도 볼거리가 많아 유난히 건축학과 학생들의 견학이 많다는 이곳은 입구에서부터 눈길을 끄는 것이 있다. 각 나라 언어들이 책을 뜻하는 자음과 모음으로 분리된 채 솟대인 양 솟아있는 '바람의 책'이다. 한글의 판본과 필사본으로 꾸민 상징 조형 벽화 '한글의 책'과 책의 역사를 역동적으로 구상, 음악으로 조각된 작품들이 옥상까지 이어져 마치 미로를 닮은 듯한 '시간의 책'도 보고 즐길 수 있다.

또한 공간의 책, 하늘의 책, 천자문의 책, 음악의 책 등 다양한 공간에 만여 권의 책을 소장하고 있다.

책의 공원인 이곳은 시민들이 책을 읽는 도서관 개념에서 벗어나, 상상력과 독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공연·전시·체험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책 테마파크의 서은경 씨는 "주말 이용객 수가 2천여 명쯤 된다"면서 "특히 어린이 대상 체험프로그램은 6월 행사까지 이미 접수가 마감됐을 정도로 인

기가 많다"고 소개했다. 누구나 신분증만 말기면 대여가 가능하고, 대여한 책은 울동공원 내 어디서든 편하게 보고 난 후 당일(오전 10시~오후 6시) 반납하면 된다.

분당동에 사는 김종경(34) 씨는 "아이들이 보는 전집류가 잘 구비돼 있어서 팔아이 윤서와 매일 온다"며 "북아트 전시나 그림도 감상할 수 있고, 컴퓨터 시설도 잘돼 있어서 자료검색하기도 편리하다"고 말했다(사진 위 가운데).

가정의달을 맞아 오는 5월 31일에는 어린이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할 인형극 '꿀맨의 콧바람', '용감한 너구리'를 오후 1시, 3시에 각각 공연하며, 관람 어린이에게는 캐릭터 요술풍선을 나눠준다.

어머니의 품처럼 찾아온 사람들을 항상 편안하게 맞아주는 울동공원. 그곳에 들어서면 어디서든 볼 수 있는 103m의 분수가 시원하게 솟아오르고 있다. 운 좋으면 그 분수 끝에서 이어지는 환상적인 무지개도 볼 수 있다.

그리고 호수가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번지점프장 앞에서 만나는 표지판 '책 테마파크'. 자연과 공존하는 책의 정원, 그곳에 가면 다양한 체험과 전시를 통해 더욱 친근하게 다가오는 책들도 만날 수 있고, 잔디밭이나 벤치에서 자연과 벗하는 그림 같은 분위기 속에서 책을 읽는 주인공도 될 수 있다.

책 테마파크 708-3588, 9088
정경숙 기자 chung0901@hanmail.net



시정소식지 '비전성남'을 정기구독 신청하시면 무료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시청 공보담당관실 전화 729-2075~6 이메일 snnews@korea.kr

Contents	2	시정포커스	4	시정소식	8	특집	10
		호국·보훈의 달 행사 개최		제14회 환경의 날 행사 개최		길거리 문화공연 '풍성'	우리 이웃 환경지도자협의회



표지 : 신구대학 식물원 (사진 : 공보담당관실 최선영)

Photo News

성남시-목포시 자매결연

성남시와 목포시가 5월 1일 자매결연을 맺고 적극적인 교류협력력을 약속했다. 행정·문화·예술·체육 등 공동 관심분야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간 교류 등을 적극 지원, 상호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729-2283



제37회 어버이날 기념식

5월 8일 노인과 시민 1,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7회 어버이날 행사가 열렸다. 이날 시립국악단과 초청가수, 코미디언의 공연으로 즐거운 자리를 마련하는 한편 효행사, 장한아버이, 노인복지기여자에 대한 시상도 있었다.

또 동주민센터·노인보건센터·복지회관 등 각종 단체에서도 부모의 노고와 은혜에 감사하는 각종 행사가 진행됐다.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 729-2872



흙몸노인 주택 '아리움' 입주식

구 성남동 사무소 부지에 한국지역난방공사, 금호아시아나 후원 건립한 흙몸노인 복지주택 '아리움(아름다운 우리들의 보금자리)'이 완공돼 5월 13일 입주식을 가졌다.

중원구 성남동 3292번지 연면적 1,937㎡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지어진 건물에는 1층은 일자리 제공을 위한 베이커리·카페가, 2층은 경로당과 봉사실, 건강관리실이, 3~6층은 세대당 33㎡ 규모의 원룸형 주거공간 19세대가 들어섰다.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 729-2872



현충일 범시민 현화운동, 조기계양 6월 호국·보훈의달 행사 개최

성남시는 오는 6월 6일 제54회 현충일을 전후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호국보훈의달 행사를 가진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전후 세대들에게 보훈의 참뜻을 인식시키기 위해 마련한다.

6일 오전 태평4동 현충탑 경내에서 현충일 추념행사가 개최된다. 성남시장을 비롯한 시의회의장, 국회의원, 보훈단체장 등 관계자와 시민 2,300여 명이 참석, 헌화와 분향의 자리를 갖는다.

범시민 현화운동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펼친다. 시 전역에 헌화대 11개소가 설치돼 시민들이 순국선열에게 꽃 한 송이를 바치면서 애국정신을 기리는 시간이 될 것이다.

성남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 수만 명의 명예를 선양하는 행사도 선보인다. 보훈단체장 간담회를 비롯해 25일(19:30 성남아트센터) 보훈가족을 위한 러브 콘서트 등이 열릴 예정이다.

퇴색돼 가는 현충일의 의미를 되살리고 역사의식도 고취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6월 6일 현충탑 경내에서 학생 백일장대회와 6~10일 사진전시회에 이어 8~10일 초·중·고등학교 현충탑 참배, 농협중앙회 성남시지부·남한산성유원지·야탑역광장·현충탑 등 4개소에서 주먹밥 먹기 체험행사도 계획하고 있다.

가정에서는 현충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태극기를 조기계양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는 것도 의미있다.

사회복지과 복지행정팀 729-2862



사이버 헌화대 설치 안내

우리 시는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위한 사이버 헌화대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운영합니다.

- 운영기간 : 2009. 6. 1 ~ 6. 30(1개월간)
- 참여방법 : 시·구·동 홈페이지(www.cans21.net) 접속 참여

제54회 현충일 시민 헌화대 설치장소 안내

- 일시 : 2009. 6. 6(토) 10:00~17:00
- 장소 : 수정구 현충탑, 수정로 외환은행 성남지점 앞, 세미브존 앞, 농협중앙회 성남시지부 중원구 남한산성유원지 입구, 농협중앙회 모란지점 주차장, 황송공원 베트남참전기념탑 앞 분당구 야탑역 광장, 중앙공원 광장, 울동공원 관리사무소 앞, 서현역 로데오거리



6월 6일 현충일 조기계양 방법

- 깃발에서 깃면 너비만큼 내려서 계양
- 집밖에서 보았을 때 대문(공동주택은 앞 배란다) 왼쪽에 계양

분당에 '국제줄기세포 메디클러스터' 설립

줄기세포 통합연구센터·산학협력센터·치료병원 등 들어서



2013년 완공 예정인 메디클러스터 조감도

오는 2013년 분당차병원 주변에 줄기세포를 생산·연구·치료하는 시설이 집약된 '국제줄기세포 메디클러스터'가 생긴다.

차병원그룹에 따르면 시로부터 현 분당구보건소 부지(분당구 야탑동 349번지)를 매입하여 (구)분당경찰서·분당구보건소 부지를 이용해 국제줄기세포 메디클러스터(이하 메디클러스터)를 설립한다.

총면적 14만2,220㎡에 지하 5층 지상 15층 규모로 지어질 메디클러스터에는 국제 줄기세포 치료병원, 국제 줄기세포 임상시험센터, 줄기세포 통합연구센터, 산학협력센터, 전문인력양성센터, 입주지원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또한 관교테크노밸리에 위치한 초청연구단지는 GMP 및 동물실험실, 바이오휴먼뱅크, CRO센터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메디클러스터가 완공되면 줄기세포 연구에서 환자 치료까지의 전 과정이 원스톱으로 이뤄져 우리 시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의료지원이 가능해지고, 고용창출 및 유동인구 유입 등으로 경제효과가 수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산학협력센터와 국제줄기세포 치료병원 등 외부협력기관을 통해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저변 확대와 기술 교류는 물론, OECD 국가 중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비용과 우수한 줄기세포 치료기술로 인해 해외 난치성 질환자들도 한국으로 유치,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기획과 기획팀 729-2232

분당차병원그룹 홍보실 02-3468-3141

박경옥 기자 qkd19090@hanmail.net

첨단 의료·바이오 산업이 한눈에

5월 27~29일 2009 성남 메디·바이오 플라자 개최



성남시와 성남산업진흥재단은 5월 27~29일 분당구 정자동 킨스타워에서 『2009 성남 메디·바이오 플라자』를 개최한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박람회는 5월 27일 오전

10시 30분 개막식을 시작으로 3일간 다채롭게 펼쳐진다. 시가 전략산업으로 집중육성하는 의료·바이오 분야의 면면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제품·신기술 전시 및 홍보(5.27~29)

수도권 최고 의료·바이오산업의 메카로 도약하고 있는 성남시의 위상을 알리는 동시에 관내 우수 제품들과 신기술을 한자리에서 선보인다. 진찰 및 진단기기, 치료기기 및 병원설비, 바이오생활 건강기기 등 3개 분야에서 49개사가 전시에 참가한다.

온라인 및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5.28)

참가기업의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해 전세계 바이어와 실시간 온라인 상담을 추진한다. 맞춤형 e-Trade 수출상담회를 통해 기업들은 별도의 마케팅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유력 해외바이어와 상담하는 등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특히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을 위해 해외바이어 초청 1:1 수출상담을 진행한다. 코트라·원주시 등과 협력해 세계 25개국 40여 명의 유망 바이어를 초청했으며, 초청 바이어

명단은 성남벤처넷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상담을 원하는 관내기업은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산·학·연·관 세미나 & 투자유치상담회(5.29)

명실상부한 의료·바이오 전문 전시회가 될 수 있도록 전국 産·學·研·官 전문가 200여 명이 대거 참여, 의료산업 기술 및 시장동향 관련 네트워킹 세미나를 개최한다. 우수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국내외 벤처캐피탈을 초청, 투자유치상담회도 마련하는 등 최적의 비즈니스 장을 제공한다.

건강검진 행사(5.29)

마지막날 정자역 경관광장에서는 시민을 위한 무료 건강검진 이벤트가 진행된다. 스트레스 및 체지방 측정, 신체 균형측정 및 근골격계질환 통증치료, 노인 활력징후 측정 및 발바사지, 검진(노·혈액형·당뇨 검사, 골밀도 측정 등) 및 건강상담, 피부건강검진 등 전문의료진으로부터 다양한 분야의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시민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참여업체 등 자세한 내용은 성남벤처넷(www.snventure.net) 성남산업진흥재단 782-3022



주목! 이 기업

〈바이오생활건강관〉(주)바이오세라

건강도 환경도 살리는

세제 없이 빨래...

에너지·물·시간 절약, 하천오염 예방

아름다운 고향에 대한 추억 하면 누구나 산과 들에 어우러진 맑은 실개천 한 장면쯤은 고이 간직하고 있을 것이다.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아니 꼭 물려줘야만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깨끗한 환경이 아닐까? 건강뿐 아니라 환경을 살릴 수 있는 세탁물을 선보인 유망 중소기업 (주)바이오세라를 소개한다.

바이오세라(분당구 야탑동)의 세탁물 원리는 이렇다. 세탁을 시작하면 세탁물 케이스 안의 세라믹 볼에 의해 강력한 원적외선 파장에너지가 생성된다. 이 에너지는 물을 활성화시켜 세척력과 살균력, 세탁물의 탈취효과를 높여주고 세탁시간을 단축시켜 에너지와 물, 그리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게다가 세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 하천오염 예방, 상수도처리비 절감 등 여러 가지로 유익하다. 세탁기 10kg기준으로 세탁물을 두 개 정도 넣으면 1천회, 즉 3년까지는 세제 없이 세탁할 수 있다.

다음은 세제를 첨가한 물, 수도물, 세탁볼을 사용한 물의 10일 후 급균어 독성 시험 결과다.

항 목	세제를 첨가한 물	수도물	세탁볼을 사용한 물
급균어사망률	66.66%	38.88%	16.66%

위의 결과는 세탁 시 세탁볼을 사용함으로써 탄천과 같은 하천뿐 아니라 강과 바다에 이르기까지 세제의 폐해로부터 생태계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바이오세라는 지난 4월 '2009 제3의 물'을 주제로 환경부에서 주최한 물산업 기술대전에서 신기술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공학박사로 직접 연구개발에 참여한 전형택 대표의 말이다.

“지금은 탄천 물이 많이 오염됐어요. 10년 전에는 낚시할 정도로 깨끗했는데... 정부에서도 4대강 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지요? 강이 깨끗하려면 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하천이 많아야 하잖아요. 세제를 줄이는 방법이 제일 좋아요. 제 포부가 있다면 '나비효과'로 지구를 살리는 겁니다. 전 세계 집집마다 세탁볼을 사용해



우리의 건강도 살리고 지구도 살리는 것이지요.”

세탁볼은 현재 미국·동남아·유럽 등에 수출중이며 전 세계 수출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전 직원 금연으로 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이 업체는 4월 25일(토) 수정구에 위치한 열린사랑의집을 방문해 청소·목욕·이불빨래 등의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직원들이 모은 성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우리가 시간을 되돌려 아들딸들에게 오염되지 않은 강산을 물려줄 수는 없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환경을 생각하면서 생활 속에서 작은 실천으로 옮기는 지혜가 필요하다.



전형택 대표

바이오세라 704-2396 www.biocera.co.kr
구현주 기자 sunlin-p@hanmail.net

아름다운 환경도시, 그린시티 정착 제14회 환경의날 행사 개최



악취 제거와 수질 개선에 효과가 있는 유용미생물(EM) 출공을 단지는 하남초등학교 5학년 2반 학생들이

“지구엔당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나 되어 기후변화를 막아요”를 주제로 오는 6월 5일 제14회 환경의날 행사가 열린다.

시가 주최하고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야탑동 탄천종합운동장 앞 탄천둔치에서 환경단체·군부대·기업체 관계자와 시민 등 1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민환경한마당과 환경테마행사로 꾸며진다.

1부 환경의날 기념식 때는 환경분야 유공자 20명에 대한 시장표창, 환경의날 기념 민물고기 방류와 EM(유용미생물)-휴광단지기가 진행된다.

2부 환경테마행사에서는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자생식물 및 야생화, 환경 사진전 ▲토종 민물고기 전시 ▲하이브리드 자동



환경단체 체험부스



민물고기 서식 실태조사

꼭 참여합니다

도움을 주고받는 사람들의 채널 ‘무한감동’ 참여 안내

나눔으로 희망을 키우는 성남만들기. 소외받고 고통받는 우리 이웃에게 희망의 꿈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 참여대상 : 후원을 희망하는 시민 및 기업체, 단체 등
- 후원대상 :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차상위 계층, 위기가정 등
- 후원금액 : 정기후원 : 5천 원 이상(1구좌 5천 원) • 일시후원 : 금액 제한없음
- 후원방법
 - 후원자가 구좌를 정해 신청서 작성 • 후원금 연말 소득공제용 영수증 발급(경기지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접 수 처 : 시청 주민생활지원과, 구·동 주민센터(문의 729-2842)

생활속 에너지 절약

이렇게 하면 온실가스가 줄어듭니다.

- 가전제품 : 사용 안 할 때 플러그 뽑기 • 조명등 : 불필요한 조명 끄기
 - 에어컨 : 여름철 실내온도 26~28℃ 유지하기 • 난방기 : 겨울철 실내온도 18~20℃ 유지하기
 - 엘리베이터 : 4층 이하는 걸어 다니기 • 자동차 : 요일제 참여하기
- ※ 이산화탄소(CO₂) 1톤은 한 가구가 연간 난방연료로 배출하는 온실가스량이다. 이산화탄소(CO₂) 1톤을 흡수하려면 잣나무 310그루를 심어야 한다. 에너지를 절약하면 365일 나무를 심는 효과가 있다.

시정알림

장애아동 재활치료바우처 신청 안내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4인가구 기준 185만3천원) 가정의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은 재활치료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언어·미술·음악·인지·행동·치료 등 재활치료서비스를 월 8~11회 받을 수 있다. 월 본인부담금은 4만원, 2만원, 면제 등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용한다.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729-2884

부동산분야 수수료 감면

5월부터 내년 6월까지 관내 중소기업(공장)을 대상으로 부동산분야 수수료를 감면한다. 감면율은 지적·일반측량은 법정수수료의 30%, 감정평가는 10%, 부동산중개는 20%다. 수수료 감면 대상기업 확인은 시청에서 받을 수 있다.

토지정보과 지적팀 729-3363

성남시 소상공인 특례 보증 실시

개별업체당 최고 2천만원까지 보증 지원해준다. 자격은 시 관내 거주하며 소상공인 사업자 등록을 필한 후 2개월 이상 영업해온 업체다. 경기신용보증재단(709-7733), 시청 생활경제과(729-2593)에 접수하면 된다. www.cans21.net

생활경제과 유통팀 729-2593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할인

기초생활수급자, 1~3급 장애인, 1~3급 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 등은 주택용(취사용·개별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한다. 고객센터 방문 및 우편접수한다.

생활경제과 가스안전팀 729-2673

여성복지회관 제47기 정규반 모집

6월 30일~12월 11일 한식조리기능사·미용사 자격증 등 총27개 강좌가 진행된다. 만 18~60세 미만 시 거주 여성은 6월 3일부터 선착순 인터넷(http://snfamily.or.kr) 접수하면 된다.

가족여성과 복지관운영팀 729-2951~6

건강가정지원센터 6월 프로그램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교육 ‘금성자녀와 통하는 화성부모’ (6.16~30 화 3회) 참가자, 아름다운 삶·사랑Ⅱ (6.27) 참여부부를 선착순 모집 중이다. 홈페이지(www.family.go.kr)접수.

성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755-9338

성남사랑상품권 취급점 추가지정

금곡동·구미동·구미1동 등 분당선 미곡역 인근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지역농협인 낙생농협 미곡지점을 추가 지정했다.

생활경제과 유통팀 729-2592

전국지방세 고지서는 이메일로!

대상 세목은 정기분에 한하며 자동차세, 재산세, 면허세, 주민세(균등할)다. 행정안전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가능하다.

세정과 지방세정보화팀 729-2722



“안녕하세요! 희망을 나누세요!” “희망 많~이 드세요.” “안녕히 가세요.” 기쁜 날 국수 나누세요.”

매주 토요일 낮, 수정구 산성동 563번지에 올려 퍼지는 희망천사들의 인사는 봄 햇살처럼 따스하고 싱그럽다.

(사)산성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정재호)은 개관 1주년을 기념해 ‘지역사회 통합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희망국수 나눔’ 사업이다. 매주 토요일(11:30~13:00) 소외계층 이웃과 국수 한 그릇에 희망을 담아 나누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고 있다.

생일·입학·졸업·승진·기념일 등 기쁜 날을 맞이한 이들은 ‘희망지기’라는 이름으로 후원팔레트를 이어간다. 국수나눔 급식비나 물품후원 등을 통해 기쁜 날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이다. ‘희망천사’ 희망국수봉사단은 안내, 음식조리, 배식을 담당해 급식소 방문객들이 국수를 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건 희망”이라며 “제2의 IMF라 불리는 요즘, 너도나도 살기 어렵다는 요즘, 우리 복지관은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희망이 담긴 국수’를 나눔으로써 나눔의 문화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길 기대해

봅니다”라고 정재호 관장은 말한다.

그동안 토요일엔 마땅한 장소가 복지에 없어서 무료급식을 실시하지 못해 안타까움이 많았다. 그런데 때마다 1주년 기념행사를 계획하던 중 산성동에 위치한 창성교회에서 장소를 제공해 이런 뜻 깊은 행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비록 모두가 어려운 시기지만 이렇듯 희망을 간직하고, 희망을 함께 나누다면 마지않아 우리를 찾아올 ‘행복한 세상’을 만나게 될 것이다.

희망국수 나눔행사 참여
산성종합사회복지관(산성역 1번출구) 746-0453
윤현자 기자 yoonh1107@hanmail.net

희망근로 참여자 모집

- 운영기간 : 6.1 ~ 11.30(6개월간)
- 사업내용 : 생활환경정비, 남한산성·청계천 등산로 정비, 탄천 크린사업, 공원정비, 행정업무보조 등
- 참여자격 : 6월 1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성남시 총 4,500명)
- 접수방법 : 5월 12일부터 주소지 동주민센터
- 구비서류 : 건강보험증과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희망근로 참여신청서
- 임금 : 1일 임금 33,000원, 교통·간식비 3,000원 지급 ※ 1개월 만근시 주·월차 수당 합하면 약 95만원
- 근무시간 : 1일 8시간(09:00~18:00) 주5일 근무 원칙
- 문의 : 동주민센터,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시청 주민생활지원과 ☎729-4972

취업, 희망이 보인다.

2009 성남권 채용박람회 개최

5월 27일(수) 오후 2~5시 성남실내체육관에서 성남권 채용박람회가 개최된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성남시와 인크루트(주)가 주관하는 이 박람회는 60여 개 유망기업과 취업희망자 1,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채용면접, 취업상담, 일자리 정보제공 등으로 꾸며진다. 5월 31일까지 온라인박람회(www.intoin.kr/ggjob)도 진행한다.

주민생활지원과 고용지원팀 729-2851~8

하계 대학생 지방행정체험 연수

오는 7월 1일~8월 26일 대학생 300여 명에게 취업 전 다양한 현장 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연수 참가자는 월~금요일 1일 4시간씩 근무하고 하루 1만7천원의 수당을 지급받는다. 희망자는 6월 8~11일 홈페이지(www.cans21.net)에 접속, 접수하면 된다.

시청 취업정보센터 729-2857~9

소자본 창업교육 실시

오는 6월 3일(수) 오전 11시 여성복지회관 대강당에서 취·창업에 관심 있는 성남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소자본 창업교육을 무료로 실시한다. 주제는 대중문화에서 배우는 창업경영학으로 심상훈 작은가게 창업연구소 소장이 강의한다.

여성복지회관 729-2951~6 http://snfamily.or.kr

취업상담실 운영

여성의 재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월~금요일(10:00~15:00) 취업상담실이 운영된다. 18세 이상 시 거주 여성을 대상으로 구직자 취업지원서비스, 구인업체 인력지원서비스, 구인·구직 알선, 심리검사·사전에 약 등이 지원된다. 방문 및 전화 상담 가능하다. 또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법, 온라인 서류접수시 유의사항 등을 알려 주는 취업대비교실도 월1회 한다.

여성복지회관 729-2954 http://snfamily.or.kr



정자권역 『드림Dream 나눔터』

200여명 참여, 수익금으로 복지사각지대 두 가정 지원예정

멀리서 차일을 치고 사람들이 오간다. “나눔터에 가시나요?” “네, 필요한 물건 있나 보려고요.” 지난 4월 30일 분당구청 앞 문화의 거리,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드림(Dream) 나눔터』에는 200여 명의 주민들이 북적인다.

행사장에서 옷을 고르고 있던 김선숙(46·수내동) 씨는 티셔츠를 꺼져들면서 “필요한 물건 싸게 구입하고, 어려운 이웃도 도울 수 있으니 일석이조 아니예요.” 하면서 환하게 웃는다.

이날 판매한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 지난 3월 뇌병변 1급 장애아동(수내동)을 지원한 데 이어 이번엔 실제 생활은 어려우나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의 두 가정을 지원할 예정이라 한다.

드림(Dream)의 “드림다”와 “꿈”, “희망”이란 뜻을 담고 있는 드림나눔터는 아름다운 가게 분당이매점 후원으로 분당구 지역을 7권역으로 나눠 지난 3월부터 열려왔다. 5월엔 서현권, 6월 이매권, 9월 야탑권, 10월 판교·금곡·운중권, 11월 구미권에서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갖는다.

조현경 사회복지사는 “관공서나 기업에서 홍보 후 버리게 되는 폐·현수막을 이용해 장바구니를 만들어 보급할 예정인데 자원 재활용 면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나눔터에 많은 시민의 참여를 바라고 있다.

분당구청 주민생활지원과 729-7211~6
아름다운가게 분당이매점 703-1004
장영희 기자 essay45@hanmail.net

제5대 후반기 성남시의회 의정방향

시민의 **꿈과 희망**을 함께하는 **성남시의회 !**

○민의를 받들고 섬기는 **어진의회**
○희망과 열정을 담은 **으뜸의회**
○친환경과 경제를 일구는 **아름의회**
○더불어 함께 누리고 보듬는 **나눔의회**
○첨단도시를 구현하는 **보듬의회**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

고도제한 완전해결을 위한 범시민 결기대회

성남시의회 김대진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지난 4월 23일 수전동 탄전변 축구장에서 고도제한 완전해결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위원장 김영봉)에서 개최한 범시민결기대회에 참석했다.



이날 김대진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성남시의회는 고도제한 완전해결을 위한 촉구결의안을 채택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한편 김학송 국회 국방위원장과 김성회 국회 국방위원 및 국방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면담하고 성남시민이 겪고 있는 고통을 설명했다. 실질적인 고도제한 완전해결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 정부는 성남시 고도제한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없이 제2롯데월드 신축을 허용했다면서 성남시의회는 100만 성남시민과 함께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건의서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에게 전달

성남시의회 김대진 의장은 지난 3월 26일 국방부 기획조정실에서 우주하 기획조정실장을 면담했다.

이날 김대진 의장은 그동안 고도제한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성남시민의 고통을 설명하면서 실질적인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를 촉구하는 성남시의회 성명서를 전달했다.

행정기획위원회 2009년 상반기 성과관리단 연찬회 참석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박문석)는 지난 4월 15일 충남태안군 안면도에서 개최한 2009년도 상반기 성과관리단 연찬회에 참석했다.

금회 개최한 연찬회는 성남시통합성과관리시스템 운영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성남시 New Leader Group” 성과평가단의 평가기법 및 정책분석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함양시키기 위해 개최한 연찬회로 향후 성남시 성과관리단의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제환경위원회 환경정책세미나 참석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이영희)는 지난 4월 27일 경기도양평군 소재 한화리조트에서 2008년 환경정책 우수기관 선정 Green City 지속 발전을 위한 환경정책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날 개최한 환경정책세미나에는 환경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총57명이 참석했으며 환경생태도시 동향과 성남시의 추진전략에 대한 강연에 이어 각 분임별 환경정책 관련 분임토의가 심도 있게 개최됐다.



체육조사위원회 현장방문 실시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형만)는 지난 5월 4일 문화복지위원회실에서 “성남시 체육행정 개선”을 위한 제8차 체육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조사위원회는 회의 중 탄전종합운동장 체육단체 사무실 사용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일부 사무실이 실제와 달리 사용치 않고 방치되고 있어 시설공단 관계자에게 시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사무실이 방치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목포시의회 의장단 성남시의회 방문

성남시의회 김대진 의장은 지난 5월 1일 목포시의회(의장 장복성) 의장단을 접견하고 성남시와 목포시의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접견은 시집행부에서 추진한 성남시와 목포시간 자매결연 조인식을 마치고 이루어졌다. 김대진 의장은 “온 국민이 경제난으로 어려운 시기에 성남시와 목포시가 자매결연을 맺게됐다”면서 백지장도 맞들면 낫듯이 성남시민과 목포시민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pride
성남어린이중창단 ‘축복의 아이들’
아름다운 화음으로 KBS 초록동요제서 대상 수상

9명의 성남지역 어린이로 구성된 중창단 ‘축복의 아이들’이 4월 26일 제24회 KBS 초록동요제 본선에서 경기도 대표로 출전, 동요 “잘 자랄게요”로 영예의 대상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았다.

축복의아이들은 수정·중원청소년수련관 동요 강사 이은희 씨가 성남지역 초등학교 1~6학년을 대상으로 동요를 가르치면서 음악에 재능을 가진 아이들을 발굴, 지난 2005년에 결성됐다. 지금은 성남예총에 소속돼 박태현 음악제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노래로 사랑을 나누고 싶은 작은 소망이 방과 후 주 1~2회, 동요로 아이들과 만나게 했다는 이은희 강사.

“이번 대회는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 되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했는데 대상을 타게 됐다”며 “연습 때보다 더 밝게 잘 표현해준 아이들, 열과 성을 다해 도와준 학부모들, 그리고 외조를 아끼지 않은 남편(성남시립합창단원)까지 모두 한 팀”이라며 감사해했다. “앞으로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언어로 다 같이 호흡하며 마음껏 노래하고 즐겁게 표현하는 무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의아이들을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만연시적인 김승연(은행초 6) 학생은 “평소 즐거운 노래와 율동이 있어서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 수 있었는데, 큰상까지 타고, TV 방송 후 학교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축하도 이어졌다”며 놀라운 추억이 생겨 정말 행복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함께한 팀의 친

구, 잘 따라준 동생들에게도 고맙다며 웃는다.

최고의 교육은 추억을 만들어 주는 것이고, 최고의 사랑은 그 추억을 공유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과다한 교육열과 TV, 컴퓨터로 메마른 아이들의 정서를 촉촉이 어루만져 주는 것. 축복의아이들이 부른 ‘잘 자랄게요’의 가사 말처럼 따뜻하고 소중한 그리고 예쁜 사람으로, 빛나는 태양처럼, 맑은 바람처럼, 추억이 많은 아이들이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 어른들이 몫이 아닐까.

고정자 기자 kho6488@hanmail.net



관내 어린이 동요를 배울 수 있는 곳

■수정청소년수련관 ‘어린이 성악’
매주(목) 오후 4시, 5시 초등 1~6학년 대상, 문의 740-5200
■중원구청소년수련관 ‘동요교실’
매주(금) 오후 4시, 5시 초등 1~6학년 대상, 문의 750-4600



연습실에서 이은희 강사와 ‘축복의 아이들’

클릭, 청소년 뉴스

구미도서관 English Zone 운영

어린이들에게 영어 공부에 대한 흥미와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사이버 영어체험공간(English Zone)이 구미도서관에 마련됐다.

사이버 영어체험공간은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한 영어체험 학습기, 영어마을 체험시스템으로 구성돼 있어 E-Book 읽기, 영어회화, 영어단어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다.

구미도서관 정보봉사팀 729-4696

참TV 청소년제작지원 영상기획안 공모전

5월 18일~6월 13일 청소년이 직접 기획 제작한 시나리오·콘티를 공모한다. 시 거주 또는 재학중 14~19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주제와 장르는 정해져 있지 않다. 우수작 5편에 각 25만원의 제작 지원비를 지원한다.

수정청소년수련관 청소년인터넷방송국
740-5280~1 www.chamtv.com

교과서 속 시대 역사탐방

오는 6월 27일(토) 서울 경복궁과 종묘에서 교과서 속 시대 역사탐방이 진행된다. 서울 600년 ‘경복궁과 종묘’ - 조선의 역사를 주제로 둘째·셋째 수요일엔 역사특강, 넷째 토요일엔 역사탐방이 이뤄진다. 시 관내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5월 20~28일 방문 접수한다. 참가비는 무료다.

서현청소년수련관 교육문화팀 781-6184

토요일 프로그램

4월 11일~10월 10일 매월 둘째 주 토요일(13:00~15:30)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책! 맛있게 먹자, 도서관 탐험여행’이 진행된다. 6월 13일엔 경제체험, 나도 CEO, 우리들의 장터체험이 청소년꿈지원 바자회와 함께 진행된다.

둘째·넷째 토요일에는 청소년봉사단 ‘그늘빛’과 함께 영어동화를 듣고 게임과 노래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Fun! Fun! English Story Telling’과 영어로 말하고 노는 영어체험 ‘Talk! Play! Love! English!’를 만날 수 있다.

서현청소년수련관 교육문화팀 781-6184

성남시
청소년
지원센터 안내

- 청소년전화 ‘1388’
24시간 상담, 긴급구조 및 정보제공
-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청소년동반자’
- 청소년 자립프로그램 ‘Do Dream Zone(두드림존)’
- 16~24세 취약계층 청소년의 자립준비를 위한 체험중심적 토론타자 지원
- 1단계 교육프로그램(집단상담), 2단계 체험프로그램(직업체험·캠프), 3단계 사회진출 지원
-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성격·진로·학습유형검사 등)
- 평일 09:00~21:00, 토요일 09:00~17:00
- 전화신청 후 내방

☎ 756-1388 (국번없이 1388)
www.sni1388.or.kr





길거리 문화공연

신록의 계절을 지나 나들이의 즐거움을 만끽하기 좋은 시기다. 굳이 공연장에 가지 않아도 주변에서 즐길 수 있게 문화공연이 야외로 나왔다. 주말 저녁 휴식시간 토요일미콘서트를 비롯해 문화예술로 봉사하는 사랑방문화클럽 '2009 문화공헌 프로젝트', 정보문화센터 야외연주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바쁜 일상 속 잠깐의 여유로움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성남시민을 찾아가는 토요일미콘서트

모란장·공원·유원지에서 미니콘서트 만나요

지난 5월 2일부터 9월 29일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과 2·4주 금요일 저녁에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원과 놀이마당, 분당구청 앞에서, 평일 모란민속장터에서 미니콘서트를 갖는다. 성남시가 주최하고 성남예총, 성남시립예술단, 관내 예술단체가 주관한다.

분당구청 앞에서 첫 공연이 있는 날, 출연자와 시민들을 기자가 만났다. 약 1시간 30분의 공연은 생각보다 무대가 협소하고 시간이 일러서 그런지, 시작할 땐 빈 의자가 많았지만 공연이 끝나갈 무렵이 되자 많은 시민이 참석했다.

유명한 경찰출신 가수 '폴리시리'가 사회를 맡았고, 가수 정수빈·이리·하비와 코메디언 한무, 분당채즈밴드 등이 출연했다. 오랜만에 보는 한무의 원맨

쇼로 관객들은 즐거운 시간을 가졌고 "우째 사람보다 의자가 더 많네"라는 멘트에 한바탕 웃음바다가 됐다. 관객들은 "어제"를 부른 가수 이리의 출연으로 잠시 추억에 젖기도 했고, 발랄한 정수빈이 트로트



출연진 미니인터뷰

성남예총에 속해 있는 부부가수 들내(39)와 하비(35)씨. 남편 들내 씨는 가수이자 작사·작곡을 하며, 제작도 하는 재주꾼이다. 부인 하비 씨는 남편이 만든 노래를 부르는 가수다.

들내 씨가 음악을 시작한 것은 중학생 때로, 당시에 이미 작사와 작곡을 했을 정도로 음악에 대한 끼가 넘쳤다고 한다. 하비 씨도 어릴 때부터 음악을 좋아하다 가수의 길을 걷게 됐다. 둘은 공연장에서 만나 5년 전 결혼에 골인했다.

하비 씨는 대표곡 '셀 위 댄스'에 라틴리듬을 사용했

를, 지역가수 하비가 '골목길'을 열창할 때는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보내기도 했다.

토요일 하루 동안 분당구청 앞을 비롯해 남한산성, 희망대공원, 수진공원 등 4곳에서 콘서트가 펼쳐졌다.

"가족과 잠시나마 음악 듣게 돼서 좋아요!"

서현동에 거주하는 박정식 씨는 "연인과 데이트를 나왔는데 뜻밖에 이런 자리에 참석하게 돼 의미 있는 날이 됐다"고 했다. 유모차에 아기를 태우고 수내동에서 온 신승환·김미정 부부는 "토요일이라 이른 저녁을 먹고 산책 중이었는데 예상 못한 공연을 보게 돼

감사하다. 이런 문화행사를 자주 열어주면 좋겠다"며 즐거워했다.

성남예총 성남시지부 흥정민 지부장은 "특정장소에서 행사를 하다 보면 한정된 시민들만 관람할 수 있어 불평이 많았다. 토요일미콘서트를 통해 장난엔 모란장으로, 매주 토요일엔 지역의 공원과 유원지로 출연진이 직접 시민들을 찾아가 공연을 하게 돼 큰 호응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록 협소한 무대지만 시민들이 많이 참석해 잠시나마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길순 기자 eks323@hanmail.net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일시	장소	주관	출연
5.29(금) 15:00	모란민속장터	성남예총	함재욱(사회), 한서경, 최영철, 향토가수
	희망대공원	시립교향악단	이아네클라이네 나흐트뮤지크, VillaPaolka, 헝가리인댄스, 여인의왕기 OST
5.30(토) 19:30	수진공원	성남예총	함재욱(사회), 유심초, 진국미, 하비, 남성남, 김문희
	분당구청앞	시립국악단	프린스오브 재주, 프론티어, 국악가요, 가요 배시메우중, 수련, 스릴, 신체스의 아이들 외
일시	장소	주관	출연
6.4(목) 15:00	모란민속장터	성남예총	
6.9(화) 19:30	모란민속장터	성남예총	
6.12(금) 19:30	검단초등학교	성남예총	
6.13(토) 19:30	남한산성유원지	시립합창단	
	희망대공원	성남예총	
	황송공원	시립교향악단	
	분당구청앞	시립국악단	
6.19(금) 15:00	모란민속장터	성남예총	
	남한산성유원지	시립국악단	
6.20(토) 19:30	희망대공원	시립소년소녀합창단	
	황송공원	시립합창단	
	분당구청앞	성남예총	
6.24(수) 15:00	모란민속장터	성남예총	
6.26(금) 19:30	금빛초등학교	성남예총	
	남한산성유원지	성남예총	
	희망대공원	시립합창단	
	황송공원	시립국악단	
	분당구청앞	시립교향악단	
6.27(토) 19:30			
6.29(월) 15:00	모란민속장터	성남예총	



부부 가수 들내와 하비

부부가 직접 작사·작곡에 노래, 제작까지

고, 기억·텔미·슬픈 인연·사랑해요 등 총 13곡이 수록된 1집을 발표한 바 있다. 댄스와 블루스, 락 요소가 가미된 앨범이라고 소개한다. 들내 씨는 기타리스트로 작사·작곡은 물론 직접 노래도 부르며 '디엔레코딩'이라는 회사도 운영하고 있다. 들내 씨가 현재까지 만든 곡이 100곡 정도라 하니 그의 능력이 가히 짐작이 된다. 20대에는 흥대 쪽에서 '인디 밴드'로 연주도 했단다.

"앞으로의 바람은 첫째 가정을 잘 꾸리는 거고, 부부가 건강한 거예요. 그래야 음악활동을 잘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좋은 앨범을 만드는 겁니다"라고 부부는 말한다.

'풍성'



사랑방문화클럽 2009 문화공헌 프로젝트

96개 클럽 1284명 시민예술가 참여, 10월까지 문화예술로 지역봉사

성남문화재단이 지원하는 사랑방문화클럽의 '2009 문화공헌 프로젝트'가 5월 6일 보바스병원 전시회를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2009 문화공헌 프로젝트는 개별적인 활동을 해오던 클럽들이 동네별 팀을 구성, 지속적인 문화예술 봉사활동과 동네 문화를 일구어 나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96개 클럽 1,284명이 참여, 13개 팀을 구성해 오는 10월까지 50여 회에 이르는 공연과 전시, 체험 등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를 추진한다.

성남문화재단의 이번 문화공헌 지원 사업은 기존

의 문화예술기금 지원방식을 탈피, 시민 스스로 자발적 활동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의 공헌활동을 통해 문화도시를 창조하는 예술시민으로 나서는 기반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재단 노재천 문화예술본부장은 "미국의 연방예술기금(NEA)이나 영국 예술위원회(ACE)기금처럼 외국은 이미 사회공헌 활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기금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부분 예술단체 지원 중심의 기금 지원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점에서 시민의 문화예술 동호회가 지역사회에 문화공헌을 촉진하도록 지원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문화예술계뿐 아니라 타 지자체에도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민들이 직접 기획한 아기자기한 공연들을 만날 수 있다.

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 783-8123~28

정보문화센터 야외연주회

6월 말까지 책과 음악의 만남

성남시 정보문화센터는 '책과 음악의 만남'을 주제로 기타와 만돌린 야외연주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주회는 정보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신록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주변 경관과 함께 음악을 통한 삶의 활력을 더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보문화센터 내 문화교육생들로 구성된 기타반 동아리 로망스연주합주단과 만돌린 동아리 미멜연주단이 5월 14일부터 6월 말까지 격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5시 중앙도서관 앞 솔밭정원에서 공연을 갖는다.

이들 동아리는 지난해 가을에 이어 2회째 야외연주회를 개최하며, 지난해부터 관내 복지시설과 병원을 찾아 월1회 연주회를 개최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연주회 일정 5월 28일, 6월 2, 11, 16, 25, 30일

정보문화센터 관리과 729-4602
박혜정 기자 misop215@naver.com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환경친구 꿈틀이’ 성남시환경지도자협의회

남한산성 환경기행, 어린이 기후변화교실 등
... 어린이와 시민에게 환경의 중요성 알려



그간의 활동 이력은 화려하다.

무엇보다 도시에서 자란 학생들은 자연을 접할 기회가 별로 없다. 이런 아이들에게 숲체험, 하천탐사, 자연환경놀이, 학교숲 보물찾기 등 자연체험을 위주로 자연환경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을 길러준다.

환경지도자 23명은 매주 수요일이면 만나 머리를 맞댄다. 보다 나은 ‘그린시티 Green City’를 만들기 위해 현장답사 일지를 놓고 고민하고 토의하며 문제를 해결한다.

주말 남한산성 숲에서, 탄천 생태모니터링 현장에 서, 또 방과후 환경교실 수업현장에서 자주 마주치는 이들이 있다. 성남시 자연환경은 책임지고 교육하겠다는 ‘환경친구 꿈틀이’ 성남시환경지도자협의회.

시민과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 1999년 6월 성남시 환경지도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들끼리 뜻을 모아 만들었다.

관내 초등학교 대상 체험환경교육과 여름체험환경 학교를 시작으로 생태 모니터링, 가족과 함께하는 남한산성환경기행, 방과후 환경교실 수업, 초등교사 직무연수 체험환경교육,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운영...

제를 해결한다.

올해는 주말 가족과 함께하는 남한산성환경기행을 시에서 위탁받아 진행하는 한편 처음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기후변화 교실을 운영한다. 실내 교육과 현장학습을 통해 무분별한 에너지 사용이 어떻게 기후변화를 가져오는 지, 화석 에너지가 고갈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환경문제가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임을 인식시킨다. 또 에너지 낭비와 환경문제의 연관성을 알게 해 생활속에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습관을 길러주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고갈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환경문제가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임을 인식시킨다. 또 에너지 낭비와 환경문제의 연관성을 알게 해 생활속에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습관을 길러주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4월부터 11월까지 남한산성 숲을 체험하고 환경 관리시설, 대체 에너지 공동체를 견학한다. 특별교실로 여름방학 탄소캠프 “CO₂ 다이어트하자”도 연다. 7월 27~31일 초등생 대상 대체 에너지 체험캠프로 1박2일간 두 차례 운영된다. 관심 있는 학생과 관내학교는 선착순 인터넷(www.ggumtree.org) 접수하면 된다.

윤은주(52) 회장은 “자비로 운영하다 보니 어려운 점이 많지만 환경이라고 관심이 없던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체험하며 같이 놀다가 ‘나도 환경을 지켜야겠다’는 마음의 변화를 느낄 때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는 유치원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바람이 있다면 시에서도 환경지도자 양성교육을 많이 시켜서 우리의 자연환경이 나날이 좋아졌으면 하는 거다. 환경교육뿐 아니라 자연체험학습과 역사 기행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환경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는 환경지도자협의회. 이들의 노력이 있기에 오늘날 ‘그린시티 성남’은 살아 있다.

성남시 환경지도자협의회 731-3922
박문숙 기자 moons4326@hanmail.net

책 읽는 성남

지역 주민들의 문화 공간이자 마을의 자랑거리

은행2동 '책 마을 어린이 문고'



중원구 은행2동 작은 도서관 ‘책 마을 어린이 문고’는 〈책과 함께 크는 어른〉 모임 회원들의 자원봉사와 은행동 어린이 전문 서점 ‘열린 책방’의 도서기증이 씨앗이 돼 2000년에 설립됐다. 지역의 어린이들과 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 꾸준한 사랑을 받아 오다 2006년 1월, 정식 사립문고로 등록됐다.

책마을어린이문고는 ‘청소년 공부방’과 함께 위탁받아 성남시와 중원구, 지역자치단체의 도움으로 운영한다. 공부방은 방과 후 무료로 영어, 수학, 원어 민 영어 강좌가 진행 중이다.

“책 읽기의 즐거움과 책을 통해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아이들의 삶이 건강하고 풍요로워지는 것”이 5년째 활동 중인 김 현(은행동 · 사진 앞줄 가운데) 관장의 바람이다.

“공부방과 어린이 문고는 공부하고 책을 읽는 공간을 넘어 자칫 방임될 수 있는 아이들의 안전한 공간이라 맞벌이 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준다”는 김 관장과

다섯 분의 사서 선생들은 아이들을 위해 종이접기 교실과 책 읽어주기, 빗그림 상영, 페이스페인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또한 지역문화 행사에 참가해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한다.

현재 9천여 권의 책을 소장한 어린이문고는 회원이 615명에 이르며 1가족당 5권 대출, 대출 기간은 2주다. 운영시간은 평일 10시부터 18시,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다. 매월 첫째, 셋째 토요일은 휴관이다.

책마을어린이문고 731-7062

추천
도서

이 세상에 태어나길 참 잘했다

박완서 글 | 한성옥 그림 | 어린이 작가정신

소설가면서 동화 〈자전거 도둑〉의 작가, 박완서의 성장 동화다. 엄마가 죽음을 무릅쓰고 낳은 북동이는 태어나자마자 아빠에게 버림받지만 외할머니와 이모의 사랑으로 행복한 나날을 보낸다. 어느 여름방학, 미국에 있는 재혼한 아빠의 새로운 가족, 필리핀계 새엄마와 동생들을 만난다. 모든 것이 낯선 북동이는 가족과 섞이지 못하고 걸돈다. 그러다 한국계 임양아인 브라운 박사의 연설과 디락방에서 아빠의 아끼를 주무르면서 조금씩 아빠를 이해한다. 아이들이 생명의 소중함과 자신의 가치를 존중하고 ‘이 세상에 태어나길 참 잘했다’고 감사하며 신나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조민자 기자 dudldk@hanmail.net



외국인여성 예절교육

한국의 예절 배우며 성남서 사랑과 꿈 키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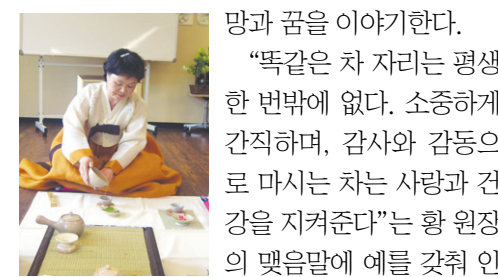


세상이 온통 싱그러운 초록빛이다. 결혼해 성남에 살고 있는 외국인여성들이 이제는 성남의 행복한 주부로 푸른 꿈을 키워가고 있다. 인사 예절부터 다도 예절 등 ‘외국인여성 예절교육’이 아담동 여성회관 온돌 강의실에서 7월까지 이어진다.

성남지역사회교육협의회 예절교육원 황명희 원장의 강의와 이애숙 선생의 다도시연이 조용하고 정성스럽게 진행되고, 다기(차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도구) 이름을 기억하려는 외국인 여성들은 호기심 어린 표정이다. 좋은 차를 고르는 방법과 차를 맛있게 우려내는 방법을 조용조용 묻고 답하며, 다소곳이 앉아 다관에 우러난 차향과 맛을 음미하며 우리 차가 주는 소중함을 알뜰히 배워간다.

“오감으로 차를 마신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향을 맡으면서, 촉각으로 느끼며, 맛을 음미하는 여유로움과 아름다운 모습은 차를 대접하는 주인과 손님 사이의 교감을 통해 의사소통의 관계로 이어진다는 교육을 어느새 잘 받아들이고 이해한다는 표현을 해준다.

대개분 씨는 중국에서 시집은 결혼 3년차 주부다. “한국식 인사가 서툴지만 그동안 배운 예절교육이 많은 도움이 돼 시어머니께서 무척 좋아하신다”고 한다.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온 지메도마 씨는 4년차 주부로서 한국의 예절뿐 아니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정말 잘 살고 싶다고 희망과 꿈을 이야기한다.



“똑같은 차 지리는 평생 한 번밖에 없다. 소중하게 간직하며, 감사와 감동으로 마시는 차는 사랑과 건강을 지켜준다”는 황 원장의 맺음말에 예를 갖춰 인사하는 외국인여성들의 모습에서 한국을 배우고 한국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당당함과 부지런함이 엿보인다.

성남의 모든 여성들에게도 성남지역사회교육협의회는 문을 언제든지 열려 있다.

성남지역사회교육협의회 707-8377
이화연 기자 maekra@hanmail.net



기획연재 성남 역사 이야기 ⑤

성남시 향토유적 제3호 송산 조건 선생

우리 고장 역사 인물 송산 조건(松山 趙楨, 1351~1425) 선생의 본관은 평양(平壤), 자는 거경(巨卿), 이름은 윤(胤)이었는데, 고려가 망하니 자를 종견(從犬)으로, 이름은 건(楨)으로 고치고 호를 송산이라 했다. 조선 개국 1등공신인 조준(趙浚)의 아우다.

시호... 다스려서 잘못이 없어 평(平), 화평하고 온순해 시비가 없어 간(簡)

실록을 비롯한 여러 기록에는 젊었을 때 여러 절의 주지를 역임하다가 30세가 넘어 환속, 문과에 급제해 고려 말 안렴사(按廉使, 각 도의 으뜸 벼슬)가 되고, 1392년 조선이 개국하자 상정군(각 군영의 으뜸 벼슬, 정삼품)으로 개국공신 2등에 책록됐다고 했다.

명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오기도 하고, 1421년(세종3) 3월 23일에는 궤장(几杖)을 하사받고 평성부원군(平城府院君)으로 승격됐다. 양주의 정절사(旌節祠), 송산사(松山祠)에 배향됐다.

1425년 5월 3일 세종실록에 기록된 〈평성부원군 조건의 졸기〉에도 그러한 이력과 함께 그가 별세하자 조화를 정지하고, 부의를 하사하고 관에서 장사를 치러주었다고 했다. 시호를 평간(平簡)이라 하니, 다스려서 잘못이 없는 것이 평(平)이요, 화평하고 온순하여 시비가 없는 것이 간(簡)이다.

‘고려 안렴사’ 로만 기록되길 원해



그런데 그 이후의 기록에서는 조건이 조선의 벼슬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온다. 이유원의 문집 『임하필기』에는 왕조를 혁명하는 즈음에 형(조준)에게 물어 간했으나 끝내 듣지 않자 송산에 숨어 이름을 건(楨)으로 고쳐 건(犬)이라는 부수를 쓰고 호를 송산(松山)이라 했다. 대개 이름은 건마(犬馬)가 주인을 그리워하는 뜻이고, 호는 산이 움직이지 않고 소나무가 시들지 않는다는 뜻을 담은 것이었다.

조준은 아우가 화를 입을가 두려워하여 몰래 개국훈(開國勳)에 기록해 억지로 평성부원군에 봉했

다. 조건은 세상을 떠날 때 자손에게 훈계를 남겨 비석에 ‘고려 안렴사’라고만 쓰고 조선의 벼슬을 쓰지 말라고 했는데, 자손들이 화가 미칠까 두려워 한결같이 훈적(勳籍)대로 썼다. 그러자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면서 비석의 벼슬을 쓴 부분에 내리쳐 현재는 ‘공지묘(公之墓)’ 세 글자만 남았다고 한다(사진 아래).

태조가 친히 주는 벼슬 거절

처음에 조건은 두류산(頭流山=지리산)에 은거하다가 청계산(淸溪山)으로 옮겨왔는데 태조가 친히 벼슬을 주었으나 끝내 받지 않았다. 조건은 날마다 제일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서 송도(松都)를 바라보고 통곡했는데, 사람들은 이 봉우리를 ‘망경봉(望京峯)’이라 했다.

태조가 청계산으로 조건을 만나러 가기에 앞서 형인 조준이 먼저 만나러 갔다. 조건은 이불로 얼굴을 가리고 누워서 통곡하면서 “나라도 망했고 가문도 망했으니 이제 입급도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돌아보건대 어찌 형제의 정이 있겠습니까?”라고 해 조준은 끝내 그를 볼 수 없었다.

태조가 고인례(故人禮=친구의 예)로써 만나자고 설득하니 할 수 없이 만났는데, 손을 올려 읊만 하고 절을 하지 않았으며 할말을 기탄없이 해 버렸다. 태조가 이를 모두 용납하고 돌아가면서 말 채찍으로 땅을 가리키며 “여기서부터 몇 리까지를 조건의 땅으로 삼아 그의 정절을 표창하고자 한다”라고 했다. 또 물집을 지어 주었는데 끝내 이를 받지 않고 양주(현재 의정부시) 송산으로 옮겨가서 살았다.

중원구 여수동 묘역, 시 향토유적으로 지정

조건이 죽자 세종대왕은 백관들에게 명하여 검은 띠를 3일 동안 차도록 했다. 경기도 기념물 제42호인 송산사(松山祠)는 현재 의정부시 민락동에 있다. 성남문화원에서 개최한 제1회 학술토론회(1999.7.22)에서 ‘고려 말기 정세(문수진)’, ‘송산 조건 인물연구(한춘섭)’ 등의 논문발표와 토론을 거쳐, 중원구 여수동 산30번지에 위치한 묘역(사진) 위에 대한 문화재 지정 청원이 이뤄져 성남시 향토유적 제3호로 지정(2001.2.20)돼 보호되고 있다.

자료제공 :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정리 : 윤종준 상임연구위원

생생 재테크(4)

올바른 보험설계

● 저축가용자금 = 소득 - 소비성지출

지난 호까지 저축가용자금 결정을 위해 정확한 소득의 파악과 예산을 통한 소비성 지출의 결정에 대해 알아봤다. 이제 우리 가정에서 얼마를 저축할 수 있는지 알게 된 것이다.

만약 소득에서 소비지출을 제외하고 남은 자금이 없거나 부족할 경우는 소비성 지출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저축을 할 수 없거나, 부족 금액만큼 대출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 자산관리의 시작, 위험관리

저축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앞서 우선적으로 배분해야 할 것이 위험관리다. 저축이 부를 일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위험관리는 부를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반드시 돈이 많이 있어야 위험관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을수록 적절한 위험관리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본다.

위험관리는 여러 가지 형태로 가능하다. 그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방법인 위험 이전을 통한 위험관리(보장성 보험 상품 가입을 통해 경제적 위험을 보험회사로 전가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한다. 보험은 장기간 불입해야 하고, 중도 해지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꼼꼼히 체크하

고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다음 사항을 고려해 설계해 보자.

● 효율적 보험 가입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가입의 순서
주 소득원 > 부 소득원 > 자녀(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자녀가 우선이 아님.)

보장의 영역
사망,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입원비, 재해 장애, 수술비, 의료실비
-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종신, 건강) + 손해보험(의료실비) 형태가 효율적임.

보장의 기간
평균 수명만큼은 고려해야 함.(80세 이상)

보험료 수준
가족 소득의 10%정도(미혼은 조금 낮고, 기혼은 조금 높을 수 있음.)

보장의 크기
- 사망 : 가족이 자립할 만큼, 약 3000만원 정도, 뇌졸중·심근경색 2000만원 정도
- 의료실비 : 상해와 질병 입원 3000만원 이상, 통원 10만원 이상
(미래의 화폐가치를 고려하면 좋음.)

확률과 통계를 고려
- 일반적으로 발생 확률이 높은 보장을 가입해야 함(가족력 등도 고려).



● 합리적인 위험관리 방법으로써의 보험

우리 사회에서 보험은 친구나 친척 등 인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가입해야 하는 상품이라는,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 몇 년 동안 열심히 불입했지만 막상 받으려 해보니 받을 것도 없고, 해약하면 손실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반드시 위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 품에 도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합리적인 보조 수단으로써의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서다.

오늘은 꼼꼼히 가정의 보험증권을 체크해 보도록 하자. 잘못된 부분은 빨리 바로잡아야만 손실을 줄일 수 있다. 혼자서 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이다.

포도재무설계 재무상담사 남기일
moneyplan@podofp.com

* 다음 호에는 '효율적인 저축 포트폴리오 구성' 편을 게재합니다.

직접 만드는 DIY 교실 5 천연주방세제 만들기

설거지 하는 시간이 짧아져요

천연주방세제를 만들어 써보니 장점은 풍부한 거품과 거품이 빨리 물에 씻겨나가 설거지 하는 시간이 짧아지고 물의 사용량이 많이 줄어든다는 것이었다. 또한 쌀뜨물 발효액을 사용해 그냥 버려지는 쌀뜨물을 세제의 재료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단점은 세제가 물과 같은 상태여서 용기 안의 세제가 빨리 줄어드는 것이다. 그러나 설거지 하는 시간이 줄어든다 주방에 서 있는 시간이 짧아지고 힘이 덜 든다. 그리고 물을 아낄 수 있어 참 좋다.

재료 코코넛 오일 400g, 가성가리용액 214g, 설탕 36g, 증류수 216g, 희석시킬 때 사용할 증류수 400g, 쌀뜨물 발효액 400g, 향이 조금 필요하다.

만드는 법 ① 가성가리와 증류수를 1:1로 섞어 둔다. ② 끓는 물에 설탕을 녹인 뒤 밀봉해 둔다. ③ 적

당량의 오일을 70~80도로 맞춘다. ④ 오일에 가성가리 용액을 섞는다. 거의 푸딩 상태가 될 때까지 섞어 핸드블랜더를 들어올렸을 때 반죽이 끊어지지 않고 반죽 위에 그림이 진하게 그려질 정도로 섞는다. ⑤ 설탕용액을 70~80도에 맞춰 4

번에 섞는다. 블랜더가 돌아가지 않을 때까지 섞어야 한다. ⑥ 풀 같은 상태가 될 때까지 주걱으로 치면서 거품을 뺀다. ⑦ 물에 1:1로 희석한다.(6번의 상태가 바닐라아이스크림 같은 상태에서 투명한 상태로 변했을 때) ⑧ 넣고 싶은 향을 넣는다.

주의점 세제를 잘 만들려면 설탕을 물에 녹여서 데우지 말고, 꼭 물을 먼저 끓인 뒤에 설탕을 녹여 온도를 맞춰야 한다. 설탕물을 데우면 설탕이 가라앉아 늘어날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비누를 만들 때 꼭 필요하지만, 가성가리가 피부에 묻지 않도록 주의해서 다루는 것이다.

자, 그럼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할까 생각하며 만들어 보자.

도움말 마리 최원실 실장 708-3071
박인경 기자 ipkarp9420@hanmail.net



건강칼럼

분당차병원 소화기센터 황성규 교수

다이어트가 필요한 간 - 비알코올성 지방간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체중감량이 우선

지방간은 술을 마시는 사람들에게 흔히 나타나며, 술자리에서 “나도 지방간이 있어” 하면서 서로 술을 권하기도 한다.

지방간이란 간에 지방이 축적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지방축적에 의해 간 세포가 손상되고 염증이 동반돼 만성 간질환으로 발전될 수 있다. 실제 의사들도 지방간은 별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환자들을 안심시킨 적도 있었지만 장기간 추적 연구에서 지방간에서도 간경변과 간암 발생이 보고돼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

간 건강을 위해서 알코올 섭취만 줄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비만 또한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식생활의 변화로 비만인구가 늘면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증가하고 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있을 때 대부분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로감이 심해지거

나, 가끔 우상복부에 불쾌감이나 동통을 느낄 수 있다. 이런 분들은 우연히 생화학 간기능검사를 받았다가 이상소견(AST, ALT)을 보이거나 복부 초음파검사에서 지방간 소견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진단을 받았다면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체중조절을 하는 것이 우선이다. 여러 약제가 사용될 수 있지만 운동과 식이요법만큼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효과적인 치료는 없다.

지방간을 일으킬 만큼 비만하다면 체중이 장기 간에 걸쳐 증가했고 고착된 습관들이 있으므로 너무 조금하듯 감량하려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1주일에 11b(0.45kg)가량 감량할 경우 하루에 500kcal의 식사 제한이 필요하다. 과일, 야채, 곡물, 가금류 살코기, 생선이 풍부한 식사가 좋다.

더불어 꾸준히 빨리걷기, 등산, 자전거 타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도록 한다. 체중감량에 실패한 경우 지방흡수역제나 비만치료를 고려해 볼 수도 있다.

정기검진에서 간염바이러스 표지자나 음주 또

는 약물 복용력, 자가면역 등 간염의 원인이 따로 없는 상태에서, 생화학 간기능검사가 지속적으로 이상을 보이는 경우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의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특히 ALT가 정상이라도 정상의 평균보다 높은 정상상위권에서 사망률이 증가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작은 간기능이상이라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며 필요하면 전문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분당차병원 산모대학 강좌

매주 월요일(12:30~13:30) 임신 관련 정보 강좌
요실금(5, 25), 한방으로 하는 산후조리(6, 11), 임신 중 치아관리(6, 8), 유방암 조기진단 및 치료(6, 15), 임신과 영양(6, 22), 임신 성 당뇨(6, 29)

매주 금요일(12:30~13:30) 산부인과 · 소아과 강좌
산모와 수면(5, 29), 신생아 관리(6, 5), 임신과 산모건강(6, 12), 분만준비와 라미즈(6, 19), 태교 및 ART Therapy(6, 26), 맞출분만(7, 3)

장소 : 5층 라미즈실(황토방)

분당차병원 780-4815

건강게시판

여성건강증진 테마교실 & 중풍운동교실

6월 4~25일(매주 水) 관내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유병률이 높은 골다공증, 요실금, 여성암, 수면장애 및 스트레스 등을 테마로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뇌졸중 장애인의 재활을 위해 5~12월(2, 4 주) 중풍운동교실을 운영한다. 직접 방문 및 전화 접수한다.

수정구보건소 지역보건팀 729-3843~4

Power Walking 운동교실

6월 1일~7월 24일(매주 월·목) 보건소와 단대공원에서 연다. BMI 25~30의 걷기운동에 제한이 없는 30~50세 주민을 대상으로 5월 29일까지 건강증진실에서 신청자를 접수한다.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팀 729-3852

임산부 ·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평가 후 맞춤형 교육 등 체계적인 영양지원을 실시한다. 대상자는 관내 거주 임신 · 출산 · 수유부와 64개월 미만 영유아다.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팀 729-3920

관절염 자조관리 교실

관절염 환자 중 거동이 가능한 자에게 6월 15일~7월 3일(매주 月·木) 운동요법과 통증관리, 골다공증 예방 및 영양관리, 체력관리 및 민간요법 등을 강의한다. 6월 1~6일 방문 및 전화로 선착순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수자를 대상으로 관절감화를 위한 수중 운동교실이 이어진다(사전 오른쪽).

중원구보건소 지역보건팀 729-3904

고지혈증 건강교실

고지혈증 질환자와 유소견자를 대상으로 6월 17일~7월 1일(매주 水) 고지혈증의 기초지식, 식이요법, 운동요법 등을 강의한다.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센터 729-4005~6

보바스기념병원 성재활교육

6월 12일(금) 오후 5시 30분~7시 10분 보바스홀에서 뇌졸중환자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본 병원의 성재활 현황, 성치료 교육자료, 뇌졸중 환자의 성생활 양상, 만족도 및 성재활 요구도 등의 내용을 다룬다.

보바스기념병원 홍보팀 786-3501

건강, 조기검진으로 지키자!

6월 이전 조기검진이 편리하다. 9월부터는 장시간 기다려야 하고, 40세 이상(자궁경부암은 30세 이상)은 암 발생 빈도가 가장 높으니 암검진을 꼭 받아야 한다. 2차 검진대상자는 꼭 정밀검진을 다시 받아야 한다. 가고자 하는 검진기관에 전화해 미리 예약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북부지사 729-0160



健康百歲

고혈압 환자의 생활수칙

고혈압의 주된 치료법은 식이요법과 운동요법, 약물요법입니다. 이 치료법에 앞서 혈압을 올리지 않는 생활습관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혈압을 올리지 않는 생활수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갖자!

일반적으로 혈압이 가장 낮아질 때는 밤에 잠을 잘 때로, 한 낮에 비해 40mmHg 정도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눈을 잠을 때 '잠이 부족하다', '개운하지 않다' 와 같은 느낌이 들지 않도록 꼭 자는 것이 좋습니다.

2. 올바른 배변 습관을 갖자!

1) 변비를 예방하자
배변 시 배에 힘을 주면 가슴 안쪽에 있는 폐를 눌러내고 있는 공간 내부의 압력이 올라가고, 심장이 한 번에 내보내는 혈액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2) 소변을 너무 오래 참지 말자
소변을 오래 참으면 방광이 소변이 가득 차게 되면서 뱃속의 압력이 높아져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3.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한(30~40℃)정도 물로 목욕하자!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열로 인한 자극으로 혈관이 수축하기 때문에 혈압이 급격히 올라 뇌졸중(뇌출혈)을 일으킬 염려가 있습니다.

4. 추운 날씨에는 세심하게 추위에 대비하자!

피부가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면 체온을 뺏기지 않으려고 교감신경이 작용하여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5. 고혈압의 약, 담배를 끊자!

담배에 포함되어 있는 니코틴은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혈관을 수축시킬 뿐만 아니라 혈압을 올리는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여 혈압상승과 연결됩니다.

6. 과음 하지 말자 (술을 적당하게 즐기는 습관을 들이자)

과음한 다음 날 아침에는 숙취제거를 위해 혈관이 수축되는데 이로 인해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Tel. 031)739.3000 www.scsch.or.kr

신종인플루엔자A(H1N1) 인체감염증 예방수칙

첫째, 손을 자주 씻고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피하십시오!
둘째, 재채기를 할 경우에는 화장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십시오!
셋째, 신종인플루엔자A 위험지역을 방문하고 7일 이내에 급성호흡기질환이 발생한 경우는 검역소나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급성호흡기질환 : 콧물 혹은 코막힘, 인후통, 기침, 발열 혹은 열감 증 2가지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 신종인플루엔자A 위험지역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수정구보건소 729 - 3861~3
중원구보건소 729 - 3921~3
분당구보건소 729 - 3981~3



